

사순절 「사랑의 헌금」 취지서

「자비의 특별희년」이 작년말 폐막되었습니다만,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우리들에게 호소하신 「교회는 하느님의 자비를 알려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대칙서)12」라는 말씀은 앞으로도 그 의미를 잃지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물론 학대 받고있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느님의 가치관과 같지 않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은 배제 소외시키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자비로이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하느님의 자비를 몸으로 나타냄으로써 배제가 아닌 따뜻함으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은 위에서 말한 성부의 자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체현할 수 있는 시기이기에, 신앙의 원점을 되새기게됩니다. 우리들이 성부의 자비를 살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교회로부터 파견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기간중 「기도 절제 사랑」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 보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헌금은 감사와 희생의 마음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이 기간 사랑의 헌금에 협력하셔서 교회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헌금은, 긴급재해원조 뿐 만이 아니라 국내외 「생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소수민족 아이들의 교육지원과 여성자립지원 등 장기적 지원프로그램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카리따스 재팬의 지원활동은 여러분의 모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금액 3분의 1이 매년 이 사순절 헌금에서 나오고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도 하느님의 자비를 구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성부의 사랑에 안긴 풍요로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사순절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3월 1일 재의수요일
카리따스 재팬 책임주교 달치시오 키꾸치 이사오 (菊地 功)